

2026년도 3/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BSI)조사

YEOSU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요약

☙ 전망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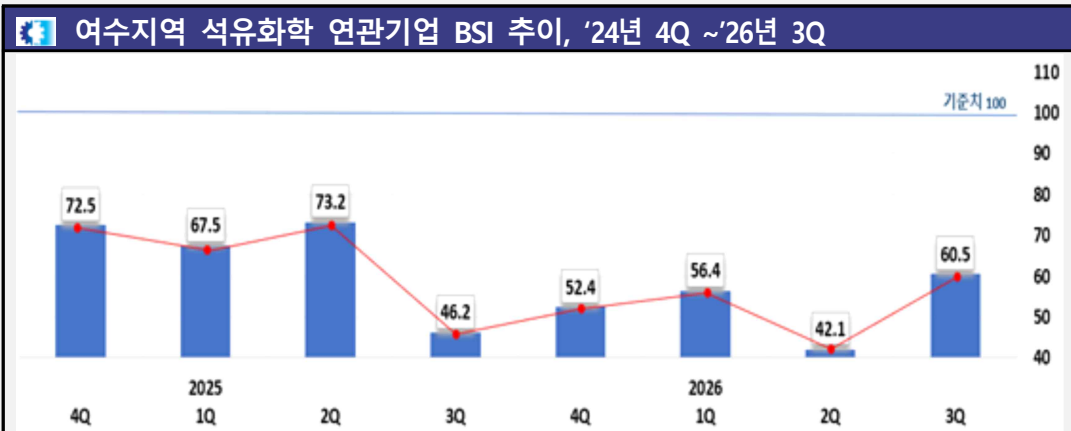
- (종합) 2026년 3/4분기 여수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BSI, n=68)는 61.8로 전 분기(49.3) 대비 6.9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부정적임 (석유화학연관 기업 60.5p).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54.9	61.8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60.5
일반업종	82.8	75.0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63.3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호전(상승, 증가)'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악화(하락, 감소)'로 응답한 업체 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연관 업종(n=38)이 60.5P, 일반업종(n=30)이 63.3P로 조사되었음.

☙ 2026년 3/4 분기 기업경기 전망(석유화학 부문)



- (석유화학 연관업종) 3/4 분기 전망은 전분기보다 부진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기에는 중동사태 이후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체감경기지수가 42.1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제품가격 상승, 에틸렌 스프레드 반등, 일부 설비 재가동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며 3/4 분기에는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 (일반업종) 3/4 분기는 관광·소비 활동과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이고, 일부 서비스·유통업종에는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지역 소비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고유가와 매출감소 부담이 이어지면서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질의응답

- 중동전쟁 이후 귀사의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1. 조사의 개요

❶ 목적

-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다음 분기(7월~9월) 경기전망(체감조사)을 조사·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❷ 조사 기간 및 조사 방법

- '26년 2/4 분기(4, 5, 6월) : 실적 기간
- '26년 3/4 분기(7, 8, 9월) :전망 기간
- 조사 기간 : '26.5.26. ~ '26.6.15. (휴일 제외 15일)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방식(리커트 척도)

❸ 조사 대상

-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 사
- 응답 개수 : 68개(설문지 회수율 : 36.6%)

❹ 조사 내용

- 전반적인 체감경기(경기실적 및 전망)
-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

❺ 집계·분석

- 회수된 조사표를 항목별로 집계·통계(리커트 척도)·분석·보고

❻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작성 방법

- 설문지 조사를 통해 경기실적과 전망, 항목별 평가를 조사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의 체감경기를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 호전(상승·증가) 또는 악화(하락·감소) 여부를 응답받아 이를 지수화했음.

$$\text{기업경기전망지수(BSI)} = \frac{\text{증(+) 응답 업체 수} - \text{감(-) 응답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 Business Survey Index (0≤BSI≤200)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상승, 증가)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하락, 감소)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뜻함.

2. 2026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

종합 전망

- 여수지역 2026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1.8로, 전분기보다 6.9P 상승했음. 다만 기준치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쳐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2/4분 기에는 중동사태, 납사 수급 불안, 국제유가 상승, 수출물량 감소 등이 겹치며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체감경기가 크게 위축됐으나, 3/4 분기에는 제품가격 상승, 에틸렌 스프레드 반등, 일부 설비의 가동 정상화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위축 국면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중국 중심의 대규모 증설과 범용제품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사업재편과 고부가 제품 전환 과제도 지속되고 있어 이번 지수 상승은 경기 회복보다는 급락 이후 나타난 제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항목별 기업경기전망지수

▷ 종합 (N=68)

구분	항목	'26년 2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3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54.9	61.8
	매 출 액	63.4	66.2
	영업이익	62.0	50.0
	설비투자	66.2	72.1
	자금사정	56.3	61.8

▶ 석유화학연관 업종(N=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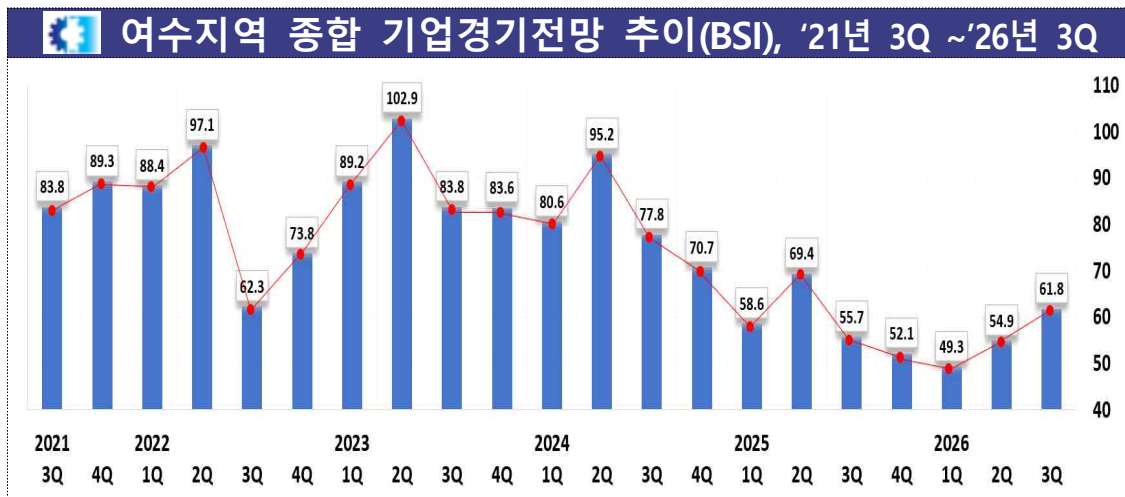
구분	항목	'26년 2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3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41.0	60.5
	매 출 액	53.8	78.9
	영업이익	51.3	63.2
	설비투자	66.7	78.9
	자금사정	56.4	76.3

▶ 일반 업종(N=30)

구분	항목	'26년 2Q 실적 (전 분기 대비)	'26년 3Q 전망 (전 분기 대비)
	체감경기	71.9	63.3
	매 출 액	75.0	50.0
	영업이익	75.0	33.3
	설비투자	65.6	63.3
	자금사정	56.3	43.3

📊 그래프 분석

▶ 종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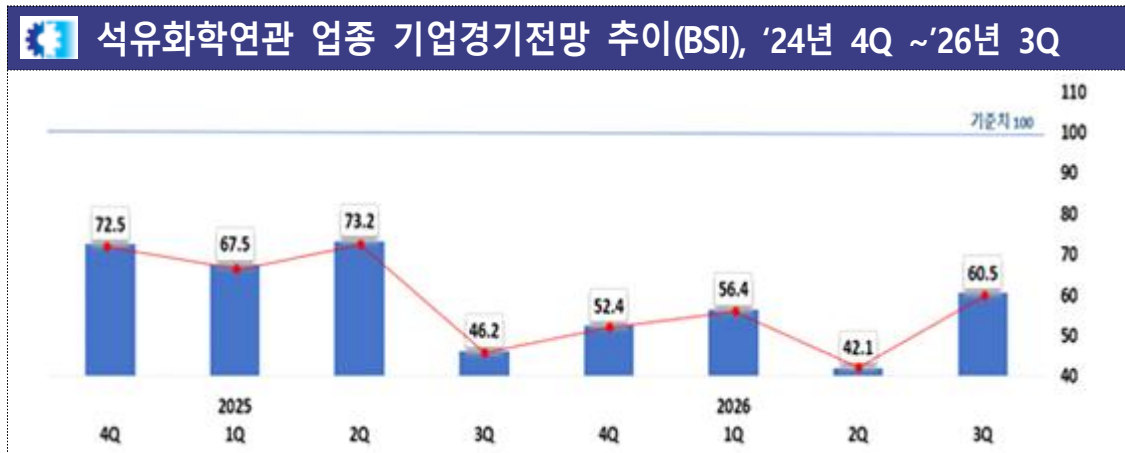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종합	83.8	89.3	88.4	97.1	62.3	73.8	89.2	102.9	83.8	83.6	80.6	95.2	77.8	70.7	58.6	69.4	55.7	52.1	49.3	54.9	61.8
석유화학연관업종	84.6	100	94.7	97.2	60.5	70.6	88.6	102.8	75.7	86.1	75.8	88.9	73.8	72.5	67.5	73.2	46.2	52.4	56.4	41.0	60.5
일반업종	82.8	75.0	80.6	96.9	64.5	77.8	90	102.9	93.5	80.6	86.2	103.8	82.1	68.6	46.7	64.5	67.7	51.7	41.2	71.9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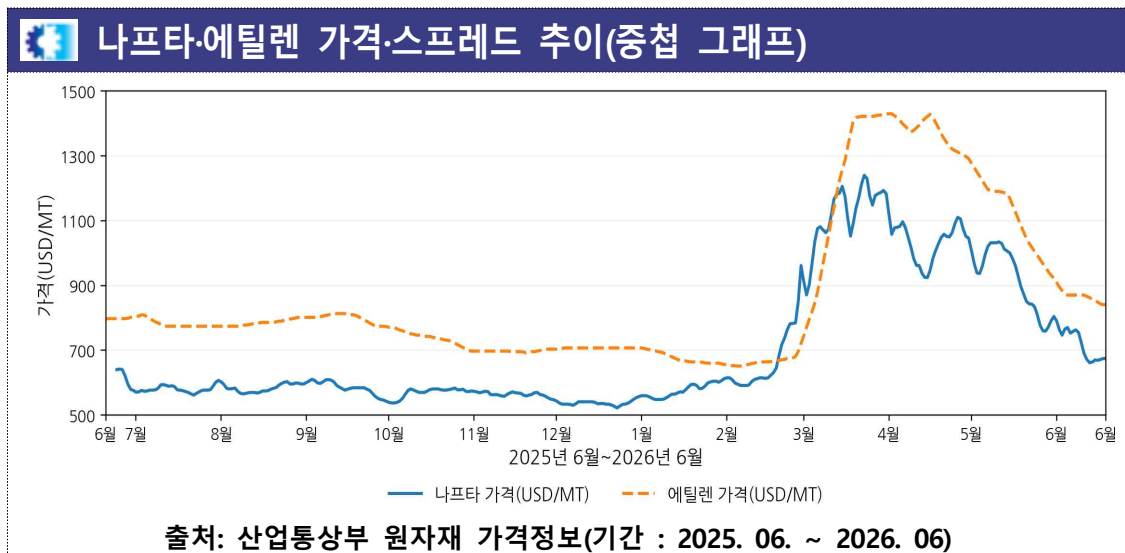
- ※ 종합 BSI : 54.9(26년 2/4분기) → 61.8(26년 3/4분기), 6.9 상승
- ※ 석유화학 연관 업종 BSI : 41.0(26년 2/4분기) → 60.5(26년 3/4분기), 19.5 상승
- ※ 일반업종 BSI : 71.9(26년 2/4분기) → 63.3(26년 3/4분기), 8.6 하락

- 종합 항목별로는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다소 개선됐으나, 영업이익 전망은 50P에 머물러 수익성 회복 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이는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금융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이익 개선 폭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석유화학연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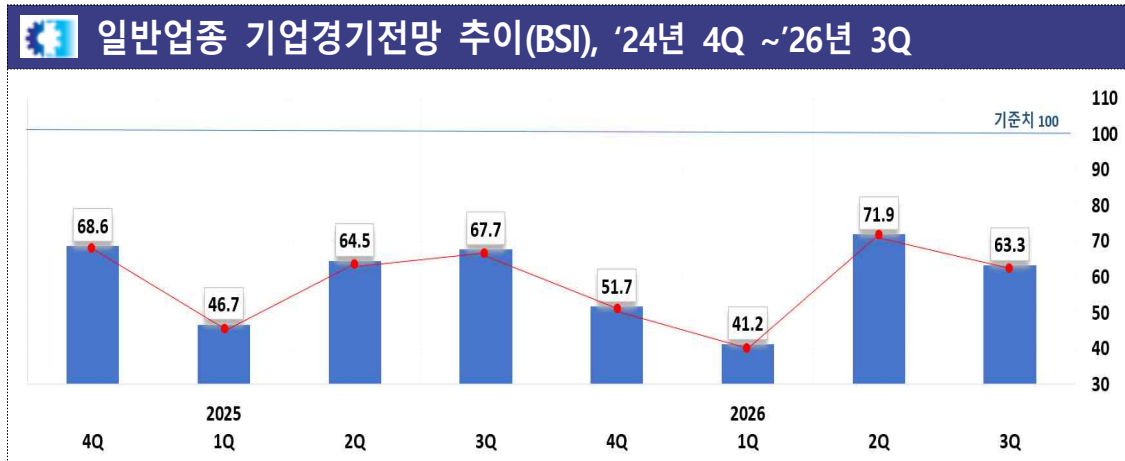


-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체감경기 BSI는 60.5로 전 분기보다 상승했음. 이는 2/4 분기 원료 수급 불안과 중동사태로 크게 위축됐던 체감경기가 일부 조정된 결과로 분석됨. 특히 에틸렌 스프레드는 3~4월 중 급락 후 일부 개선세를 보였고, 일부 시점에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도 나타났음.



- 이에 더해 NCC 일부 재가동 및 가동률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황 반등 기대가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모든 항목이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아, 업계 전망은 회복보다는 불확실성 완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분석됨.

▶ 일반업종



- 일반업종의 체감경기 BSI는 63.3으로 전 분기보다 하락했음. 3분기는 관광·소비 활동과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이고, 일부 서비스·유통 업종에는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그럼에도 지역 소비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고유가와 생산비 상승 부담이 이어지면서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조사 결과 분석

▶ 종합

- 3/4 분기 BSI 상승에는 2/4 분기 급락 이후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하락 압력이 다소 완화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일반업종도 계절적 수요와 내수 개선 기대가 일부 반영됐으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음.
-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 회복보다는 극단적으로 위축됐던 국면이 일부 완화된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종합 BSI가 61.8까지 상승했음에도 기준치 100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 연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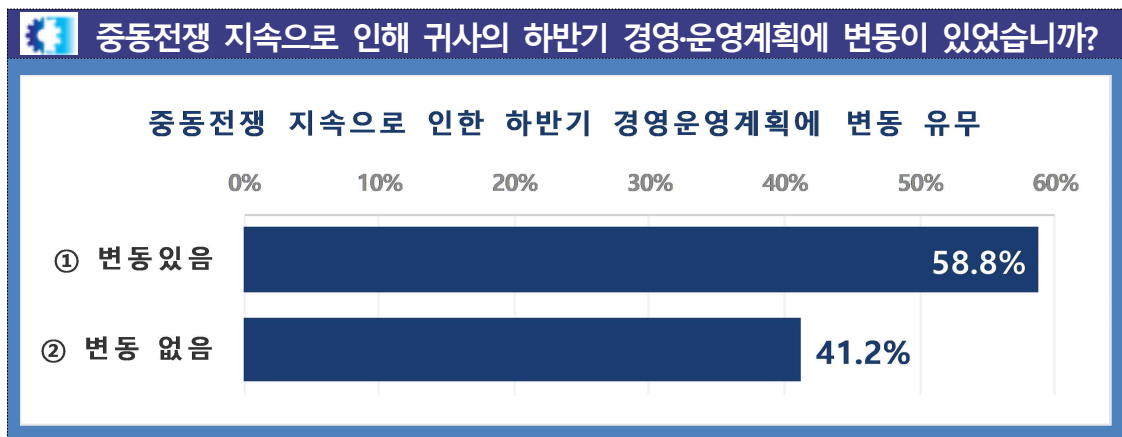
- 석유화학연관 업종은 전 분기보다 개선됐으나, 이는 2/4 분기 급락 이후 에틸렌 스프레드 반등, 일부 설비 재가동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위축 국면이 일부 완화된 결과로 분석됨.
- 다만 수요 회복과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 한, 이번 반등이 안정적인 회복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단순한 경기 부양보다 기업의 매출 여건 개선, 비용 부담 완화처럼 실제 경영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일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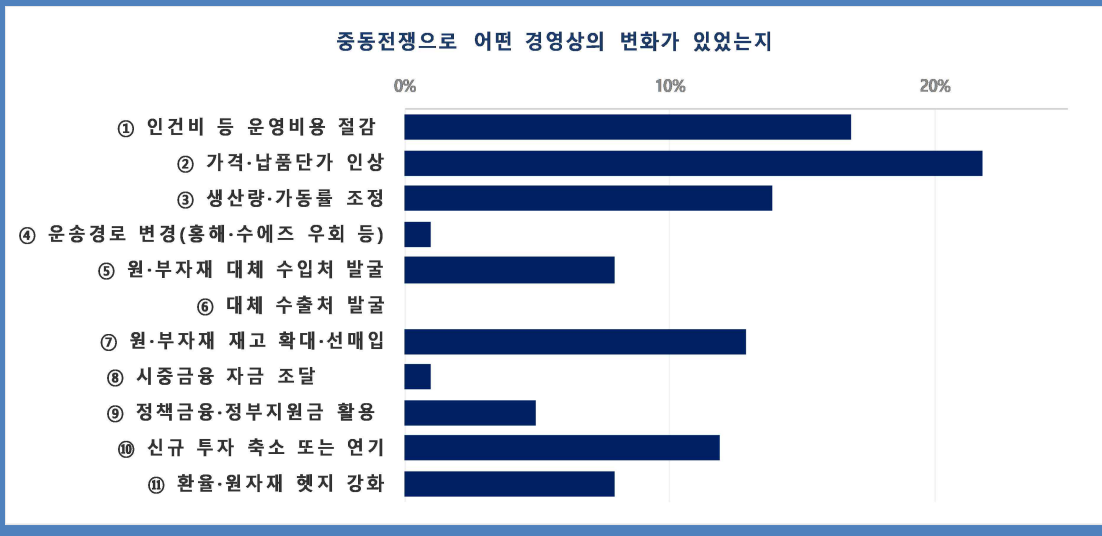
- 일반업종은 체감경기 BSI가 63.3으로 전 분기보다 하락했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도 낮아져 종합 지수 상승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이는 석유화학연관 업종의 반등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일반업종은 지역 내수 회복 지연과 비용 부담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를 지역 경기 전반의 개선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업종의 경기 흐름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와 비용 부담 완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3. 세부 항목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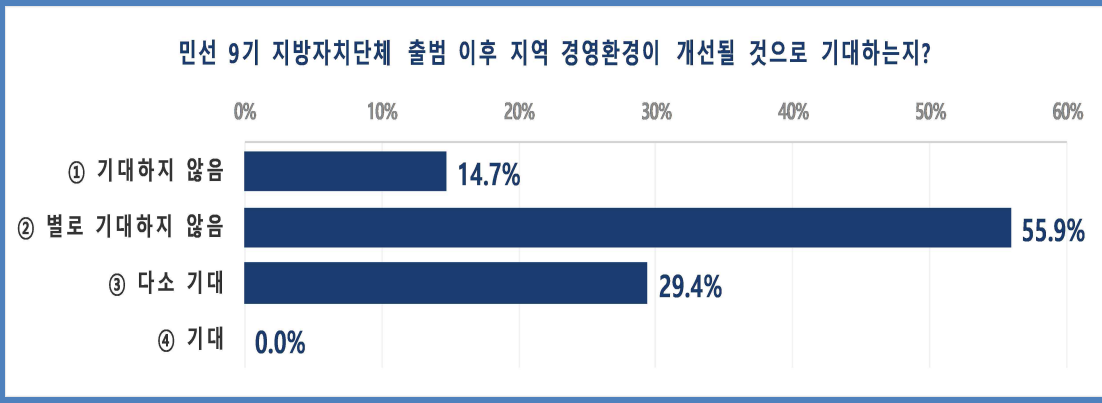
- ▶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해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은 '변동있음'(58.8%) > '변동없음'(41.2%) 순으로 조사됨.

중동전쟁 이후 귀사의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 중동전쟁으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 주요 변화로는 가격·납품단가 인상(21.8%)> 인건비 등 운영비용 절감(16.8%)> 생산량·가동률 조정(13.9%)>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12.9%)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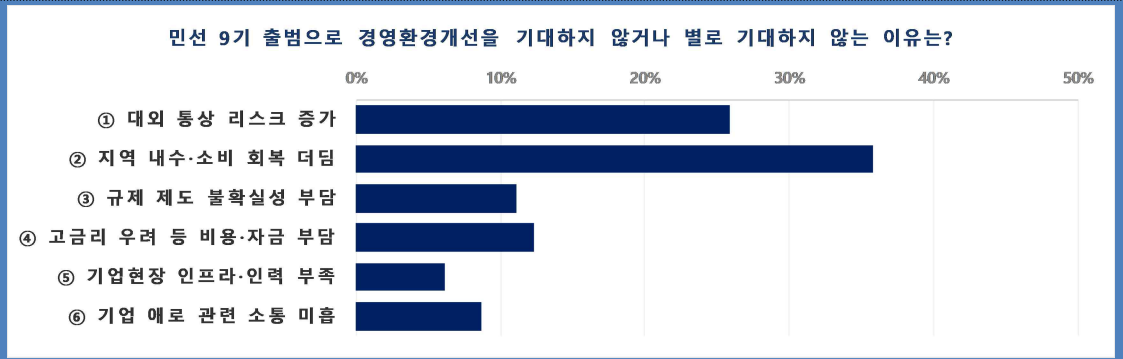
7월 1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귀사가 소재한 지역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 별로 기대하지 않음(55.9%)> 다소 기대(29.4%)> 기대하지 않음(14.7%) 순으로 조사 되었음.



민선 9기 출범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지 않거나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 ▶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 내수·소비 회복 더딤 (35.8%)>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25.9%)> 고금리 우려 등 비용·자금 부담 (12.3%) 순으로 조사되었음.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 ▶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제 감면·보조금 등 지자체 재정지원 강화(23.7%)>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성장 거점 육성 (17.2%)>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구축(12.6%)> 입지·시설·환경 규제 완화(11.6%) 순으로 조사되었음.





여수상공회의소